

겨울철 사슴사육에 대한 위생

성 유 석
(본회 수의사)

기온차가 심한 11월에 들어서면 사육 동물 모두에 예방약을 투약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며, 주위의 환경을 위생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육장의 흙을 바꾸어 주고 소독약을 살포하여 청결하게 하는 것과 사료통이나 급수장을 소독하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때 종합영양제와 구충약을 함께 내복시켜야 하며 발육성장이 좋지 못한 사슴은 서로 분리 사육하고, 수의사는 사슴의 건강 여부를 확인하여 집중적인 관리를 하여 주어야만 추운 겨울을 무난히 넘길 수 있다.

10월과 11월 사이에는 사슴의 이동이 있고 겨울을 대비한 건조구입을 해야 하며 또 전염병이 가장 많이 오염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가) 반추운동상태
- 나) 전신운동상태
- 다) 피부상태
- 라) 비점막의 건조 또는 습한지의 여부
- 마) 침을 흘리는 상태
- 바) 배변 상태 (설사를 하는지의 여부)
- 사) 배뇨상태
- 자) 호흡상태 (기침을 하는 가에 대한 여부)

차) 기타 (갑작스러운 비정상적인 행동을 사육사가 직감한 경우)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원인과 병명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만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미리 막을 수가 있다.

1) 겨울철에 발병하는 대표적인 질병

- 가) 소화기질병 : 식체, 고창증, 장염
- 나) 호흡기질병 : 기관지염, 폐염
- 다) 생식기에 관한 질병 : 자궁탈질탈, 불임증
- 라) 피부질환 : 피부염, 탈모증
- 마) 대사질환 : 영양장애
- 바) 운동기질환 : 골절
- 사) 기타 질병 : 골수염, 마비증세

가) 소화기질병

① 식 체

㉠원인

일시에 사료를 과식하거나 채식 후에 운동 부족일 때 반추 위의 기능이 쇠약해지면 증세가 나타난다. 특히 사료를 변경 급여하거나 농후사료를 많이 줄때에 식체증상이 발생한다.

㉡증상

식욕과 원기가 없고 배분이 적어지며 반추작용이 없어진다. 왼쪽배가 부풀어 있으며 만

저보면 딱딱하다. 복통증상이 나타나고 불안한 거동을 보인다. 호흡이 얇고 빨라지며 우울, 운동기피 증상을 나타낸다.

㊸치료

2일 정도 절식시킨다. 복부를 짚단 등으로 잘 마찰하여 위를 자극시켜서 운동을 도와준다.

효소 소화제나 위 기능 증진제를 투여하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킨다.

급성 고창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 수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지시에 따른다.

②고창증

㊸원인

초봄에 새풀을 갑자기 다량으로 주었을 때 부패된 사료나 두과식물을 과식했을 때, 발효하기 쉬운 것을 다량으로 주었을 때, 항생물질의 남용 등으로 제 1위의 소화기능 감퇴로 인해 제 2위내에 반복해서 가스가 축적하여 발생한다.

㊸증상

팽창된 제 1위와 제 2위에 의해 복부가 팽대해지고 혈액 순환관 호흡작용을 억제하여 호흡이 빨라진다.

제 1위와 제 2위의 수축운동이 멈추어 지고 되새김도 없어지며 간헐적으로 동통을 호소한다. 이때 치료를 즉시 받지 못하면 사슴은 죽게된다.

특히 포말성 고창증인 경우에는 더욱 위험하다.

㊸치료

우선 발효방지제를 먹인 다음에 치료를 의뢰한다. 응급방법으로는 석유 20~40g을 병에 담아서 먹이는 것으로 발효를 중지시키기

도 한다. 왼쪽 복부에 압력을 가하면서 5분 동안 강하고 고르게 마사지를 해준다. 가스테거제(가스트리트)를 사용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주사바늘로 반추위 중앙부위를 찔러서 직접 가스를 뽑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전문 수의사에게 맡긴다. 당분간은 목초를 제한하면서 서서히 정상적인 사료공급을 한다.

③장 염

㊸원인

부패사료나 비위생적으로 처리한 사료를 급여한 경우나 장내세균감염과 콕시듐 등의 기생충에 감염된 경우, 또는 사료를 갑자기 바꾼 경우에 발생하며 농후사료를 많이 급여 해도 생긴다.

㊸증상

식욕이 저조하고 설사를 하거나 연변이 나오며 탈수로 수척해진다. 피모가 거칠어 지고 활동상태가 불량하다.

㊸치료

항생제, 설파제 등을 주사하거나 투약하면서 수액을 겸용하면 효과가 빠르다. 정장제등을 투여하고 위장기능 항진제를 투여한다. 기생충 검사 후에 구충을 실시한다.

나) 호흡기 질병

①기관지염

㊸원인

기후가 불순하거나 급변이 있을 때, 추울 때나 먼지를 흡입하였을 때, 전염성 질환이나 중독 등이 발생하였을 때나 사슴을 난폭하게 운송하였을 때 기관지염이 발생하며, 습눈의 경우에는 절각 후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되기도 한다.

사슴에게 있어서 기관지염은 처음부터 만성적으로 이환되는 예가 많다. 보통 어린 사슴이나 숫사슴에서 많이 발생하고, 폐농양, 폐충, 결핵 등에서도 볼 수 있다.

㉔증상

기침이 주된 징후인데, 처음에는 짧은 마른 기침이었다가 후에 습한 기침으로 변한다. 활동이 미약하며 두부를 아래로 떨구고 거품을 심하게 흘리는 경우가 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체중이 감소되며 심하면 화농성 삼출물이 증가되어 어느 경우에는 폐 전체에 만연된다.

㉕치료

보통 만성적으로 이환되었기 때문에 폐에 감염되었다는 생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

기온이 급변화 할 때에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울타리에 바람막이를 하여서 보온에 주의한다. 양질의 풀을 주고 안정시킨다. 사료에 약간의 흥분제를 섞고 항생제 및 영양제를 투여하면 효과가 좋다. 기침을 심하게 하면 진해제를 투여한다.

②폐렴

㉔원인

기온의 급변, 감기, 장거리 수송에 따른 피로, 사료급여의 제한으로 인한 영양불량, 운송 차량의 시설미비로 인한 강풍접촉, 제거하기 힘든 오물의 불처리 등이 원인이 된다.

또한 사슴장 내에 철망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콜탈을 핏물 먹었을 때, 사육자가 용액으로 된 약물을 먹었을 때나 인공포유시 사슴의 머리를 고정시키고 우유를 주입시켰을 경우에 약물이나 우유가 기관지로 들어가 발생되는데 이 때에는 치명적이다.

㉔증상

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공통된 증상은 다음과 같다. 40℃ 이상의 고열로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섭취의 부족으로 원기가 상실되며, 반추작용이 없어지고, 좌우벽부에 호흡으로 인한 심한 팽대가 있으며, 선동에 의한 통증을 받는다. 호흡수 40 회이상, 맥박 80 ~ 100 회, 체온의 불규칙 변화가 생긴다.

폐포와 기관지내에 축적되는 삼출물로 인하여 청진시 “랏셀음”과 같은 이상음이 뚜렷이 나타난다.

맥박수의 증가로 심장에 무리가 생겨 심장의 기능저하를 가져오게 되며, 혈액도 중성기호 백혈구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㉕치료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좋은 사료와 깨끗한 음료를 공급하며, 가능하면 녹사내와 방목지의 토양을 췌어내고 새로운 깨끗한 흙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환기와 보온(16℃ 이상)을 시켜주어야 한다.

치료약으로는 설파제와 항생제의 겸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 생식기에 관한 질병

①자궁탈 또는 질탈

㉔원인

난산으로 인하여 태아 분만시 함께 외음부로 자궁전체가 뒤집혀 나온다.

㉔증상

외음부에 질이나 자궁이 빠져나와 매달려 있으므로 짐막에 상처가 생겨 출혈되거나 오염이 된다.

㉔치료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땅에 앉아 흙 모래등으로 자궁조직이 상해서 출혈이 되어 폐사하므로 빨리 전문 수의사에게 연락하여 외부로 나온 자궁이나 질을 세척하여야 한다. 그후에 정복시킨 후 외과적 처치를 병행한다. 그리고 압박정한다.

㉕불임증

㉕원인

암컷이 너무 살이 쪼거나 반대로 영양 불량이어서 현저히 쇠약했을 경우 또는 생식기의 발달이 불충분할 경우와 자궁내의 지방축적이 심하거나 노쇠증의 일환으로 난소가 위축되었을 때 생긴다.

㉕증상

영양불량일 때에는 대체로 마르고 피모가 거칠며 이와 반대로 자궁내의 지방축적이 심할 때에는 비대하고 배가 부르며 활동성이 없다.

㉔치료

영양제를 투여하여 체기능을 향진시키며 난소발육을 촉진시킨다. 사료급여의 조절로 지방의 축적을 막고 자궁의 정상적인 작용으로 복원시킨다.

라) 피부 질환

①피부염

㉕원인

약해진 피부에 세균이 감염되어 일어나며 광물질, 비타민 등의 부족으로 인한 영양장애,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대사장애, 근친번식된 사슴, 체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발생한다.

㉕증상

탈모현상이 나타나며 피모가 거칠고 윤기가 없다. 소양증을 발하며 귀, 목, 안면 등 연약한 피부에 가피가 형성되며 심하면 전신으로 퍼져서 호흡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피부조직에 개선이 덮여 있으면 냄새가 몹시 난다.

㉔치료

기생충 검사 후 구충을 실시하고 영양 사료첨가제를 투여하여 장기적으로 치료한다. 환부를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호제를 발라준다. 아연화연고와 캄파연고는 효과가 좋다. 사육장내를 청결히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한다.

②탈모증

㉕원인

영양실조, 부패사료의 섭취, 위장염, 기생충 감염, 유행성감기, 급속증득시에 발생하며 옥소결핍은 선천적 탈모증이 된다.

㉕증상

전신에 나타나며 빠진 곳의 피부는 검게 변한다. 중세가 심하면 두부에도 나타낸다. 호흡곤란이 되기도 하며 겨울철에 털이 빠지게 되면 치명적이다.

㉔치료

사료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하며, 농후사료와 무기질, 비타민 등이 함유된 사료 첨가제를 배합하여 급여한다. 질 좋은 청초나 건초도 많이 급여한다.

마) 대사 질환

①영양장애

㉕원인

위, 장기장애에 의한 영양손실, 기생충 감염, 광물질 영양소의 결핍 등이 주원인이며 겨울

철에 급격히 발생하여 털갈이 시기인 봄철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㉔증상

식욕이 감소하고 마르며 허리가 굽는다. 탈모현상이 나타나거나 털갈이를 늦게 하며 피모가 거칠어진다.

㉕치료

원인 제거를 하여 영양손실을 막고 영양대사 촉진제를 장기적으로 투여하며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 높은 사료를 급여한다.

바) 운동기 질환

①골절

㉔원인

포획시 잘못하여 다리가 부러지는 수가 있으며 동종간의 난동, 투쟁시 발생하기도 한다.

㉕증상

다리를 절거나 딛지 못하고 끈다. 출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㉕치료

예리한 골편이 조직, 혈관, 신경 등을 손상시킨 상태가 심하면 빠른 시간내에 절단 수술을 받아야 예후가 좋다. 그러나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석고붕대로 기브스를 하면 된다.

사) 기타 질환

①골수염

㉔원인

비위생적으로 빨을 절각하였을 경우 빨에 감염되어 발병한다. 또는 농양상태에서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고 진전되면 뼈에 까지 감염되어 골수염을 유발한다. (한국야생 동물병원장)

㉔증상

환부의 치유가 지연되며 식욕부진, 활동상태 불량, 선회운동을 하며 열이 나고 코가 마르며 우울증을 발한다.

㉕치료

환부를 소독, 외과적 처치를 한 후 고단위 항생제로 주사한다. *

(야생동물병원장)

회 무 보 고

- 8/10 해외 양록연수단 중국양록시찰 마치고 귀국
- 8/21 KBS. TV양록관계 녹화 방송
- 9/ 3 임원연석회의
- 9/ 6 정책건의 소위원회(1차)
- 9/12 정책건의 소위원회(2차)
- 9/17 정책건의안 심의서 농림수산부 전달
- 9/24 UR농산물 협상대책 Offer List자료 농림수산수 제출
- 9/25 알팔파 사료수송(부산항)
- 9/28 UR협상저지 전국협의회 참석(이수성 부회장, 사무국장)
- 10/ 8 알팔파사료 수송(인천항)
- 10/20 회보 제 11호 발행

회 원 동 정

- 8/10 이현모이사 회춘당약방 신축(5층)이전
- 8/17 이 영, 이경섭, 방상극, 전대농축개발대학원 수료
- 9/17 회장 허만기 경제관련 세미나 개최(제목: 하반기의 제정 금융정책 방향)
- 9/15 안정식 부회장 축산정보 수집 및 견학차 미국 방문(10일간)
- 9/29 이병읍 부산지회장 자혼
- 10/15 이수성 부회장 알팔파농장시찰차 캐나다 방문(7일간)
- 10/21 안정식 부회장 3남 결혼
안병식 이사 3여 결혼